



<b>코스피</b> 2401.91 (+17.69)	<b>코스닥</b> 878.29 (-0.59)
<b>금리</b> (연이자율) 0.949 (-0.024)	<b>환율</b> (원/달러) 1186.40 (-1.90) (8일)



[뉴스]  
신문 받아보듯  
아침식단 쓱쓱  
진화하는 식품 구독  
02

## 3기 신도시 6만호 내년 7월 사전청약

**국토교통부**  
하남 교산·고양 창릉·용산 정비창  
2022년까지 물량 6분의1 조기공급

정부는 8일 경기도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 등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를 내년과 2022년에 걸쳐 사전청약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일정을 보면 6만가구 중 3기 신도시는 2만220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12만가구라는 점에서 신도시 물량 6분의 1 이상이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공급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4면>

수요자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중 3600가구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별됐다. 하남 교산(649만㎡)은 서울 송파구와 연계해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지를 송파 방면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일산 생활권이라 교산지구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고양 창릉(813만㎡)은 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 물량 3만8000가구 중 공공분양 41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나오는 1만가구 중 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등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은 5000가구에 달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지는 이번엔 사전청약 일정이 잡히지 못했지만 내년 하반기 중 사

사전청약을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태릉골프장은 2000가구, 과천 정부청사 부지나 서부면허시험장 등지에서선 각 1500가구 정도를 사전청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물량까지 다 합하면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1만가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사전청약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지역의 반대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일정이 밀린 것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부지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을 우선 마무리해야 해 발표를 미룬 것일 뿐이며, 지역 주민과는 잘 소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사전청약을 제시한 것에는 3040 젊은층이 '지금 아니면 집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불안심리로 비싼 구축 주택 매수에 나서는 패닉바임(공황 매수)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정연우 기자 ywi964@



태풍 피해농가 방문한 이성희 회장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전국 농가들도 피해를 입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가운데)이 8일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배추 농가를 방문해 최근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업계, 코로나·태풍·정부규제 '삼중고'

분상제 시행에 정비사업 감소  
거리두기 3단계 면 공사 지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근로자 안전은 물론 공급·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각 건설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이어질 경우 필수인력만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택 공급물량은 감소 추세가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2만9026호로 5년 평균(34만1909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 **공사지연 등 건설사 부담 '눈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급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3개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앞서 지난 2007년 분상제가 민간택지에 도입된 이후 2년 동안 정비사업이 급감한 바 있다. 일반 분양가를 낮추면 정비사업 조합의 수익성이 줄어드는 만큼 조합이 사업기간을 인위적으로 늦췄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난다. 이에 따른 기업의 피해에 대해선 여전히 대응방안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이어지면 대규모 건설현장은 공사강제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실내외 모두 10인 이상 모임과 집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태풍의 경우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공사가 지연됐을 경우 정부의 보상책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3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마켓 '더반찬&'이 올해 추석 코로나19 시대 첫 명절을 맞아 다양한 차례상을 준비했다

제수음식 HMR 온라인주문  
추석선물 마스크-손 세정제

## '낮선' 언택트 한가위

코로나궤 비대면 추석 준비  
고향방문 대신 선물전달 늘듯

유통가, 맞춤형 선물 강화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부터  
다양한 HMR 선물세트 선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언택트 추석'으로 만들고 있다.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추석을 준비하면서 차례상 및 선물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대 속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이지만 유통업계에는 벌써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제사 음식을 일일이 준비하기보다는 가정 간편식(HMR) 제품을 온라인을 통한 주문하고, 아예 제사상 음식을 세트로 준비해 주는 '투고(to go)' 서비스도 등장했다.

이번 연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분위기에 귀향객이 준 것이 '언택트 추석'으로 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티몬이 지난달 27~30일 고객 150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47%)이 이번 추석을 '직계 가족끼리만 보내겠다'고 응답했으며, '가족과 친척을 모두 만나지 않을 것'이란 답도 18%에 달했다. 정부가 연휴 기간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유통업계는 고향 방문 대신 선물만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선물을 구매하는 이들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관련 서비스 및 상품 물량을 대폭 늘렸다. 특히 코로나19로 확산세를 반영해 위생 및 개인방역에 관련된 선물세트뿐만 아니라, 집밥과 혼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커지자 지난 설 당시 약 20개 점포에서만 진행했던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전점으로 확대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세트 구매 간편 서비스와 기프트콘 보내기 등도 새로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위생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추석 선물의 구성도 변했다. '참치·스팸'으로 대표되던 추석 대표 선물도 '손 세정제·마스크' 등 위생용품으로 대체됐으며, 이마저도 '비대면'으로 보내는 추세다. 티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주문 또는 선물하기 기능 활용' 응답이 25%를 차지했다. 이 밖에 '택배로 보내겠다'는 응답은 7%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시간 모여서 음식을 차리기 어려운 만큼 온라인을 통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소비자도 크게 증가했다. <3면에 계속>

/조효정·원은미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편의점 업계는 건강, '혼추족(혼자 추석을 보내는 족)', 배송을 고려한 선물을 다양하게 준비했다.